

- ① 2016 ~ 2018년 동안 ‘공공사업자’ 지출액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해는 2017년이다.
- ② 2018년 사용자별 지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개인’이 가장 높다.
- ③ 2016 ~ 2018년 동안 사용자별 지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매년 ‘공공사업자’가 가장 낮다.
- ④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의 지출액 합은 매년 ‘개인’의 지출액보다 크다.
- ⑤ 2018년 모든 사용자의 지출액 합은 2015년 대비 80 % 이상 증가하였다.

문 3. 다음 <보고서>는 2017년과 2018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고서>—

2018년 청소년활동 9개 영역 중 ‘건강·보건활동’의 참여 경험(9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85.2%), ‘모험개척활동’(5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17년과 2018년 모두 ‘교류활동’의 참여경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8년 향후 가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활동으로는 ‘문화예술활동’(22.5%), ‘진로탐색·직업 체험활동’(21.5%)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2018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에 대한 9개 항목 중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라는 응답(4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참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청소년활동을 가장 희망하는 시간대는 ‘학교 수업시간 중’(43.7%)으로 조사되었고, ‘기타’를 제외하고는 ‘방과 후’가 가장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2018년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37점으로 2017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도자 만족도’가 ‘활동내용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청소년활동 정책 인지도 점수는 최소 1.15점에서 최대 1.42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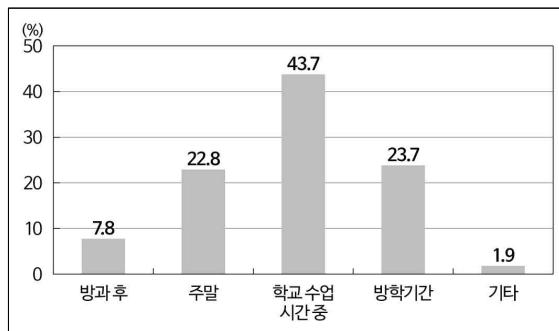
—<보 기>—

ㄱ.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및 향후 참여희망 비율 (2017 ~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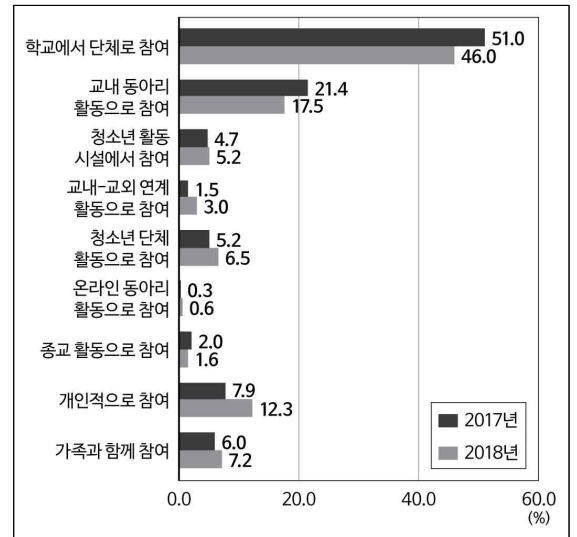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연도	영역								
		건강·보건 활동	과학 정보 활동	교류 활동	모험 개척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탐색·직업 체험 활동	환경 보존 활동	자기 계발 활동
참여 경험	2017	93.7	53.6	26.5	55.7	79.7	55.4	63.8	42.4	41.3
	2018	93.6	61.2	33.9	57.8	85.2	62.9	72.5	48.8	50.8
향후 참여 희망	2017	9.7	11.6	3.6	16.4	21.1	5.0	21.0	1.7	4.7
	2018	8.2	11.1	3.0	17.0	22.5	5.4	21.5	1.8	3.5

ㄴ. 청소년활동 희망시간대(2018년)



ㄷ. 청소년활동 참여형태(2017 ~ 2018년)



ㄹ. 청소년활동 정책 인지도 점수(2017 ~ 2018년)

(단위: 점)

항목 \ 연도	2017	201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1.24	1.27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14	1.15
청소년어울림마당	1.40	1.42
청소년특별회의	1.28	1.30
청소년참여위원회	1.35	1.37
청소년운영위원회	1.41	1.4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1.31	1.32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1.29	1.28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1.18	1.20

※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

- ① ㄴ,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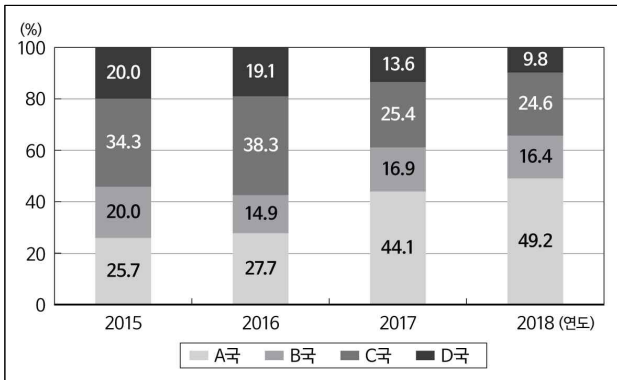
문 4. 다음 <표>는 2015 ~ 2018년 A ~ D국 초흡수성 수지의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5 ~ 2018년 초흡수성 수지의 특허출원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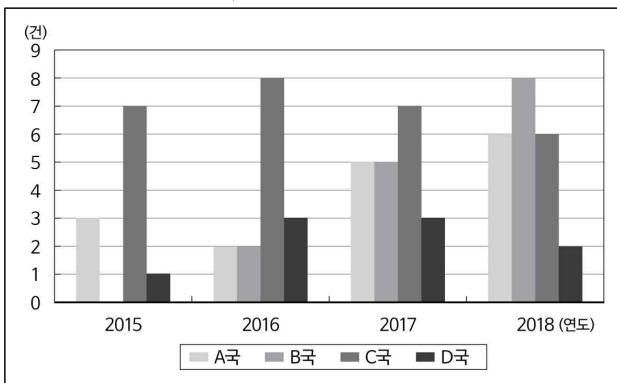
국가	기술분야	연도				합
		2015	2016	2017	2018	
A	조성물	5	8	11	11	35
	공정	3	2	5	6	16
	친환경	1	3	10	13	27
B	조성물	4	4	2	1	11
	공정	0	2	5	8	15
	친환경	3	1	3	1	8
C	조성물	2	5	5	6	18
	공정	7	8	7	6	28
	친환경	3	5	3	3	14
D	조성물	1	2	1	2	6
	공정	1	3	3	2	9
	친환경	5	4	4	2	15
계		35	47	59	61	202

※ 기술분야는 조성물, 공정, 친환경으로만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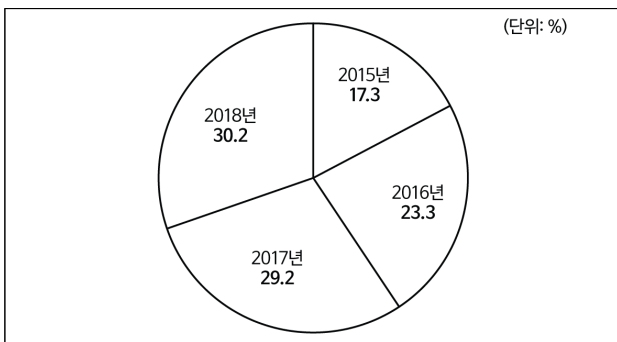
① 2015 ~ 2018년 국가별 초흡수성 수지의 특허출원 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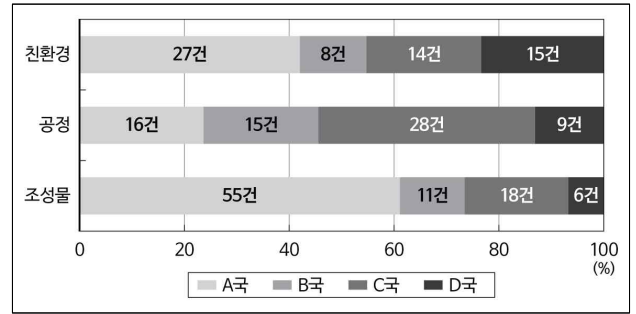
② 공정 기술분야의 국가별, 연도별 초흡수성 수지의 특허출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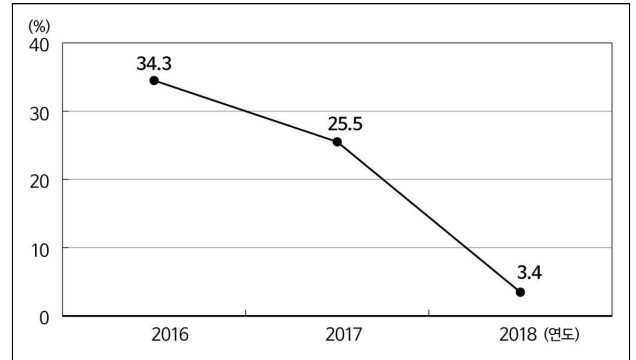
③ A ~ D국 전체의 초흡수성 수지 특허출원 건수의 연도별 구성비



④ 2015 ~ 2018년 기술분야별 초흡수성 수지 특허출원 건수 합의 국가별 비중



⑤ A ~ D국 전체의 초흡수성 수지 특허출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문 5. 다음 <표>는 수면제 A ~ D를 사용한 불면증 환자 ‘갑’ ~ ‘무’의 숙면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수면제별 숙면시간

(단위: 시간)

수면제	환자					
	갑	을	병	정	무	평균
A	5.0	4.0	6.0	5.0	5.0	5.0
B	4.0	4.0	5.0	5.0	6.0	4.8
C	6.0	5.0	4.0	7.0	()	5.6
D	6.0	4.0	5.0	5.0	6.0	()

<보 기>

- ㄱ. 평균 숙면시간이 긴 수면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C, D, A, B 순이다.
 ㄴ. 환자 ‘을’과 환자 ‘무’의 숙면시간 차이는 수면제 C가 수면제 B보다 크다.
 ㄷ. 수면제 B와 수면제 D의 숙면시간 차이가 가장 큰 환자는 ‘갑’이다.
 ㄹ. 수면제 C의 평균 숙면시간보다 수면제 C의 숙면시간이 긴 환자는 2명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6. 다음 <표>는 2018년 A ~ C 지역의 0 ~ 11세 인구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A ~ C 지역의 0 ~ 5세 인구(2018년)
(단위: 명)

지역 \ 나이	0	1	2	3	4	5	합
A	104,099	119,264	119,772	120,371	134,576	131,257	729,339
B	70,798	76,955	74,874	73,373	80,575	76,864	453,439
C	3,219	3,448	3,258	3,397	3,722	3,627	20,671
계	178,116	199,667	197,904	197,141	218,873	211,748	1,203,449

<표 2> A ~ C 지역의 6 ~ 11세 인구(2018년)
(단위: 명)

지역 \ 나이	6	7	8	9	10	11	합
A	130,885	124,285	130,186	136,415	124,326	118,363	764,460
B	77,045	72,626	76,968	81,236	75,032	72,584	455,491
C	3,682	3,530	3,551	3,477	3,155	2,905	20,300
계	211,612	200,441	210,705	221,128	202,513	193,852	1,240,251

※ 1) 인구 이동 및 사망자는 없음.
2) 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보 기>

- ㄱ. 2016년에 출생한 A, B 지역 인구의 합은 2015년에 출생한 A, B 지역 인구의 합보다 크다.
- ㄴ. C 지역의 0 ~ 11세 인구 대비 6 ~ 11세 인구 비율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높다.
- ㄷ. 2018년 A ~ C 지역 중, 5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5세 인구 대비 0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일하다.
- ㄹ. 2019년에 C 지역의 6 ~ 11세 인구의 합은 전년대비 증가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 7. 다음 <표>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의 참전현황 및 피해 인원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의 참전현황 및 피해인원
(단위: 명)

구분 \ 국가	참전현황		피해인원				
	참전 인원	참전군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전체
미국	1,789,000	육군, 해군, 공군	36,940	92,134	3,737	4,439	137,250
영국	56,000	육군, 해군	1,078	2,674	179	977	4,908
캐나다	25,687	육군, 해군, 공군	312	1,212	1	32	1,557
터키	14,936	육군	741	2,068	163	244	3,216
호주	8,407	육군, 해군, 공군	339	1,216	3	26	1,584
필리핀	7,420	육군	112	229	16	41	398
태국	6,326	육군, 해군, 공군	129	1,139	5	0	1,273
네덜란드	5,322	육군, 해군	120	645	0	3	768
콜롬비아	5,100	육군, 해군	163	448	0	28	639
그리스	4,992	육군, 공군	192	543	0	3	738
뉴질랜드	3,794	육군, 해군	23	79	1	0	103
에티오피아	3,518	육군	121	536	0	0	657
벨기에	3,498	육군	99	336	4	1	440
프랑스	3,421	육군, 해군	262	1,008	7	12	1,289
남아공	826	공군	34	0	0	9	43
룩셈부르크	83	육군	2	13	0	0	15
계	1,938,330	—	40,667	104,280	4,116	5,815	154,878

- ① 미국의 참전인원은 다른 모든 국가의 참전인원의 합보다 15배 이상 많다.
- ② 참전인원 대비 전체 피해인원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이다.
- ③ 공군이 참전한 국가 중 해당 국가의 전체 피해인원 대비 ‘부상’ 인원의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태국이다.
- ④ ‘전사·사망’ 인원은 육군만 참전한 모든 국가의 합이 공군만 참전한 모든 국가의 합의 30배 이하이다.
- ⑤ ‘실종’ 인원이 ‘포로’ 인원보다 많은 국가는 4개국이다.

문 8. 다음 <표>는 ‘갑’국의 가사노동 부담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가사노동 부담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분 \ 부담형태		부인 전담	부부 공동분담	남편 전담	가사도우미 활용
성별	남성	87.9	8.0	3.2	0.9
	여성	89.9	7.0	2.1	1.0
연령대	20대	75.6	19.4	4.1	0.9
	30대	86.4	10.4	2.5	0.7
	40대	90.7	6.4	1.9	1.0
	50대	91.1	5.9	2.6	0.4
	60대 이상	88.4	6.7	3.5	1.4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0.1	6.7	2.3	0.9
	미취업자	87.4	8.6	3.0	1.0

※ ‘갑’국 20세 이상 기혼자 100,000명(남성 45,000명, 여성 55,000명)을 대상으로 동일시점에 조사하였으며 무응답과 중복응답은 없음.

<보고서>

- 성별
 - － 가사도우미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은 0.9%로 가사도우미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 1.0%와 비슷한 수준임.
 - － ㉠ 가사노동을 부인이 전담한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의 응답자 수 차이는 8,500명 이상임.
- 연령대
 - － 가사노동을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 － ㉡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음.
- 경제활동상태
 - － ㉢ 가사노동 부담형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와 미취업자가 응답한 비율의 차이는 ‘부인전담’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부 공동분담’, ‘남편전담’, ‘가사도우미 활용’의 순으로 나타남.
 - － ㉣ 가사노동을 ‘부인전담’ 또는 ‘남편전담’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은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낮음.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ㄷ, ㄷ

문 9. 다음 <표>는 2014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1회당 구매금액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 건)

1회당 구매금액	수입통관 건수
50달러 이하	3,885
50달러 초과 100달러 이하	5,764
100달러 초과 150달러 이하	4,155
150달러 초과 200달러 이하	1,274
200달러 초과 1,000달러 이하	400
1,000달러 초과	52
합계	15,530

<표 2> 품목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 건)

구분 \ 품목	일반 · 간이 신고	목록통관	합
의류	524	2,438	2,962
건강식품	2,113	0	2,113
신발	656	1,384	2,040
기타식품	1,692	0	1,692
화장품	883	791	1,674
핸드백	869	395	1,264
완구인형	249	329	578
가전제품	89	264	353
시계	195	132	327
서적류	25	132	157
기타	1,647	723	2,370
전체	8,942	6,588	15,530

<보고서>

2014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을 ㉠ 1회당 구매금액별로 보았을 때, ‘50달러 초과 100달러 이하’인 수입통관 건수의 비중이 전체의 35% 이상으로 가장 크고, ‘50달러 이하’가 25%, ‘100달러 초과 150달러 이하’가 27%, ‘150달러 초과 200달러 이하’가 8%였다. 그리고 ㉡ 1회당 구매금액이 20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총 건수가 200달러 초과인 수입통관 총 건수의 30배 이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2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위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달러 초과’ 고가물품의 경우, 전체의 0.3% 정도로 비중은 작았으나 총 5만 2천 건 규모로 2009년 대비 767% 증가하며 전체 해외 직접 구매 증가 수준(330%)에 비해 상대적으로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금을 내더라도 가격 차이 및 제품 다양성 등으로 인해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품목별 수입통관 건수의 비중은 ‘의류’가 전체 수입통관 건수의 15% 이상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건강식품’, ‘신발’ 순이었다. ㉣ ‘핸드백’, ‘가전제품’, ‘시계’의 3가지 품목의 수입통관 건수의 합은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하였다. ㉤ 수입통관을 일반 · 간이 신고로 한 물품 중에서 식품류(‘건강식품’과 ‘기타식품’) 건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ㄷ
- ⑤ ㄷ

문 10. 다음 <표>와 <그림>은 ‘갑’ 요리대회 참가자의 종합점수 및 항목별 득점기여도 산정 방법과 항목별 득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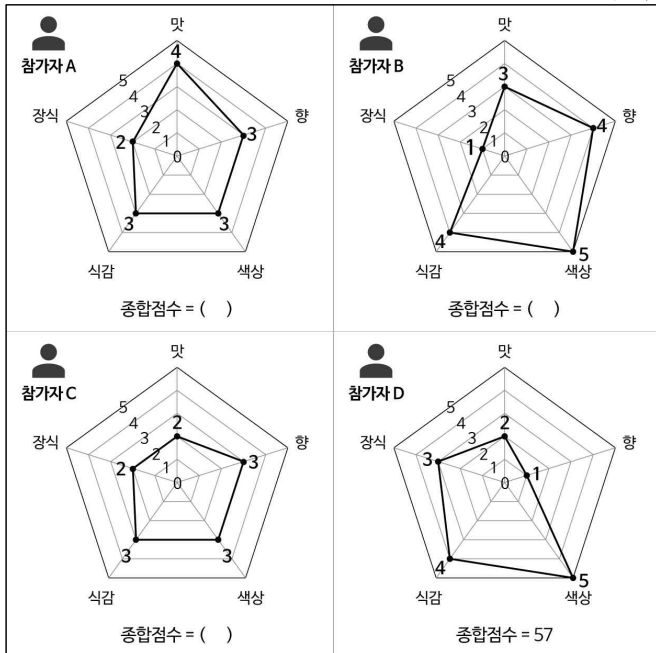
<표> 참가자의 종합점수 및 항목별 득점기여도 산정 방법

- 종합점수 = (항목별 득점 × 항목별 가중치)의 합계
- 항목별 득점기여도 = $\frac{\text{항목별 득점} \times \text{항목별 가중치}}{\text{종합점수}}$

항목	가중치
맛	6
향	4
색상	4
식감	3
장식	3

<그림> 전체 참가자의 항목별 득점 결과

(단위: 점)



※ 종합점수가 클수록 순위가 높음.

<보 기>

- ㄱ. 참가자 A의 ‘색상’ 점수와 참가자 D의 ‘장식’ 점수가 각각 1점씩 상승하여도 전체 순위에는 변화가 없다.
- ㄴ. 참가자 B의 ‘향’ 항목 득점기여도는 참가자 A의 ‘색상’ 항목 득점기여도보다 높다.
- ㄷ. 참가자 C는 모든 항목에서 1점씩 더 득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순위가 될 수 없다.
- ㄹ. 순위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맛’ 항목 득점기여도가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 11. 다음 <표>는 2018년 5~6월 A군의 휴대폰 모바일 앱별 데이터 사용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8년 5~6월 모바일 앱별 데이터 사용량

앱 이름 \ 월	5월	6월
G인터넷	5.3 GB	6.7 GB
HS쇼핑	1.8 GB	2.1 GB
톡톡	2.4 GB	1.5 GB
앱가게	2.0 GB	1.3 GB
뮤직플레이	94.6 MB	570.0 MB
위투브	836.0 MB	427.0 MB
쉬운지도	321.0 MB	337.0 MB
JJ멤버십	45.2 MB	240.0 MB
영화예매	77.9 MB	53.1 MB
날씨정보	42.8 MB	45.3 MB
가계부	—	27.7 MB
17분운동	—	14.8 MB
NEC뱅크	254.0 MB	9.7 MB
알람	10.6 MB	9.1 MB
지상철	5.0 MB	7.8 MB
어제뉴스	2.7 MB	1.8 MB
S메일	29.7 MB	0.8 MB
JC카드	—	0.7 MB
카메라	0.5 MB	0.3 MB
일정관리	0.3 MB	0.2 MB

- ※ 1) ‘—’는 해당 월에 데이터 사용량이 없음을 의미함.
 2) 제시된 20개의 앱 외 다른 앱의 데이터 사용량은 없음.
 3) 1GB(기가바이트)는 1,024MB(메가바이트)에 해당함.
- ① 5월과 6월에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앱 중 5월 대비 6월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량이 가장 큰 앱은 ‘뮤직플레이’이다.
 - ② 5월과 6월에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앱 중 5월 대비 6월 데이터 사용량이 감소한 앱은 9개이고 증가한 앱은 8개이다.
 - ③ 6월에만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모든 앱의 총 데이터 사용량은 ‘날씨정보’의 6월 데이터 사용량보다 많다.
 - ④ ‘G인터넷’과 ‘HS쇼핑’의 5월 데이터 사용량의 합은 나머지 앱의 5월 데이터 사용량의 합보다 많다.
 - ⑤ 5월과 6월에 모두 데이터 사용량이 있는 앱 중 5월 대비 6월 데이터 사용량 변화율이 가장 큰 앱은 ‘S메일’이다.

문 12. 다음 <표>는 2016 ~ 2018년 ‘갑’국 매체 A ~ D의 종사자 현황 자료이다. 이와 <조건>을 근거로 2018년 전체 종사자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표> 매체 A ~ D의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매체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2016	A	6,530	15,824	22,354	743	1,560	2,303
	B	3,944	12,811	16,755	1,483	1,472	2,955
	C	3,947	7,194	11,141	900	1,650	2,550
	D	407	1,226	1,633	31	57	88
2017	A	5,957	14,110	20,067	1,017	2,439	3,456
	B	2,726	11,280	14,006	1,532	1,307	2,839
	C	3,905	6,338	10,243	1,059	2,158	3,217
	D	370	1,103	1,473	41	165	206
2018	A	6,962	17,279	24,241	966	2,459	3,425
	B	4,334	13,002	17,336	1,500	1,176	2,676
	C	6,848	10,000	16,848	1,701	2,891	4,592
	D	548	1,585	2,133	32	593	625

<조 건>

- 2017년과 2018년 ‘통신’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전년대비 매년 증가하였다.
- 2017년 여성 종사자가 가장 많은 매체는 ‘종이신문’이다.
- 2018년 ‘방송’의 정규직 종사자 수 대비 비정규직 종사자 수의 비율은 20 % 미만이다.
-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남성 종사자가 감소했고 여성 종사자가 증가한 매체는 ‘인터넷신문’이다.

1. 종이신문 - 방송 - 인터넷신문 - 통신
2. 종이신문 - 인터넷신문 - 방송 - 통신
3. 통신 - 종이신문 - 인터넷신문 - 방송
4. 통신 - 인터넷신문 - 종이신문 - 방송
5. 인터넷신문 - 방송 - 종이신문 - 통신

문 13. 다음 <표>는 성별, 연령대별 전자금융서비스 인증수단 선호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성별, 연령대별 전자금융서비스 인증수단 선호도 조사결과
(단위: %)

구분	인증 수단	휴대폰 문자 인증	공인 인증서	아이핀	이메일	전화 인증	신용 카드	바이오 인증
성 별	남성	72.2	69.3	34.5	23.1	22.3	21.1	9.9
	여성	76.6	71.6	27.0	25.3	23.9	20.4	8.3
연 령 대	10대	82.2	40.1	38.1	54.6	19.1	12.0	11.9
	20대	73.7	67.4	36.0	24.1	25.6	16.9	9.4
	30대	71.6	76.2	29.8	15.7	28.0	22.3	7.8
	40대	75.0	77.7	26.7	17.8	20.6	23.3	8.6
	50대	71.9	79.4	25.7	21.1	21.2	26.0	9.4
전체		74.3	70.4	30.9	24.2	23.1	20.8	9.2

- ※ 1) 응답자 1인당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선호하는 인증수단을 선택했음.
- 2) 인증수단 선호도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인증수단을 선호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임.
- 3) 전자금융서비스 인증수단은 제시된 7개로만 한정됨.

1. 연령대별 인증수단 선호도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 모두 아이핀이 3번째로 높다.
2. 전체 응답자 중 선호 인증수단을 3개 선택한 응답자 수는 40 % 이상이다.
3. 선호하는 인증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한 남성 수는 바이오 인증을 선택한 남성 수의 3배 이하이다.
4. 20대와 50대간의 인증수단별 선호도 차이는 공인인증서가 가장 크다.
5. 선호하는 인증수단으로, 이메일을 선택한 20대 모두가 아이핀과 공인인증서를 동시에 선택했다면, 신용카드를 선택한 20대 모두가 아이핀을 동시에 선택한 것이 가능하다.

문 14. 다음 <표>는 3D기술 분야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국의 국가별 영향력지수와 기술력지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3D기술 분야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국의 국가별 영향력지수와 기술력지수

국가	구분	특허등록 건수(건)	영향력지수	기술력지수
미국		500	()	600.0
일본		269	1.0	269.0
독일		()	0.6	45.0
한국		59	0.3	17.7
네덜란드		()	0.8	24.0
캐나다		22	()	30.8
이스라엘		()	0.6	10.2
태국		14	0.1	1.4
프랑스		()	0.3	3.9
핀란드		9	0.7	6.3

- ※ 1) 해당국가의 기술력지수 = 해당국가의 특허등록건수 × 해당국가의 영향력지수
- 2) 해당국가의 영향력지수 = $\frac{\text{해당국가의 피인용비}}{\text{전세계 피인용비}}$
- 3) 해당국가의 피인용비 = $\frac{\text{해당국가의 특허피인용건수}}{\text{해당국가의 특허등록건수}}$
- 4) 3D기술 분야의 전세계 피인용비는 10임.

<보 기>

- ㄱ. 캐나다의 영향력지수는 미국의 영향력지수보다 크다.
- ㄴ. 프랑스와 태국의 특허피인용건수의 차이는 프랑스와 핀란드의 특허피인용건수의 차이보다 크다.
- ㄷ.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국 중 한국의 특허피인용건수는 네 번째로 많다.
- ㄹ. 네덜란드의 특허등록건수는 한국의 특허등록건수의 50 % 미만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문 15. 다음 <표>는 2013 ~ 2017년 A ~ E국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A국의 건강보험 진료비 발생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기관	소계	341,410	360,439	390,807	419,353	448,749
	입원	158,365	160,791	178,911	190,426	207,214
	외래	183,045	199,648	211,896	228,927	241,534
약국	소계	120,969	117,953	118,745	124,897	130,844
	처방	120,892	117,881	118,678	124,831	130,775
	직접조제	77	72	66	66	69
계		462,379	478,392	509,552	544,250	579,593

<표 2> A국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단부담		345,652	357,146	381,244	407,900	433,448
본인부담		116,727	121,246	128,308	136,350	146,145
계		462,379	478,392	509,552	544,250	579,593

<표 3> 국가별 건강보험 진료비의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국가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B	16.3	3.6	5.2	4.5	5.2
C	10.2	8.6	7.8	12.1	7.3
D	4.5	3.5	1.8	0.3	2.2
E	5.4	-0.6	7.6	6.3	5.5

<보 기>

- ㄱ.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A국이 C국보다 크다.
 ㄴ. 2014 ~ 2017년 동안 A국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국의 직접조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매년 감소한다.
 ㄷ. 2013 ~ 2017년 동안 A국 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비 중 공단부담 금액은 매년 3조 8천억 원 이상이다.
 ㄹ. B국의 2012년 대비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의 비율은 1.2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16. 다음 <보고서>와 <표>는 2015년 ‘갑’국의 수출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

- 2015년 ‘갑’국의 총 수출액에서 전자제품은 29.9%, 석유제품은 16.2%, 기계류는 11.2%, 농수산물물은 6.3%를 차지한다.
 ○ 2015년 ‘갑’국의 총 수입액에서 전자제품은 23.7%, 농수산물물은 12.5%, 기계류는 11.2%, 플라스틱은 3.8%를 차지한다.

<표 1> ‘갑’국의 수출입액 상위 10개 국가 현황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갑’국의 총 수출액에 대한 비율	국가명	수입액	‘갑’국의 총 수입액에 대한 비율
1	싱가포르	280	14.0	중국	336	18.0
2	중국	260	13.0	싱가포르	264	12.0
3	미국	188	9.4	미국	178	8.1
4	일본	180	9.0	일본	161	7.3
5	태국	114	5.7	태국	121	5.5
6	홍콩	100	5.0	대만	106	4.8
7	인도	82	4.1	한국	97	4.4
8	인도네시아	76	3.8	인도네시아	86	3.9
9	호주	72	3.6	독일	70	3.2
10	한국	64	3.2	베트남	62	2.8

※ 무역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으로, 이 값이 양(+)이면 흑자, 음(-)이면 적자임.

<표 2> ‘갑’국의 대(對) ‘을’국 수출입액 상위 5개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1	천연가스	2,132	33.2	농수산물	1,375	305.2
2	집적회로 반도체	999	14.5	집적회로 반도체	817	19.6
3	농수산물	861	43.0	평판 디스플레이	326	45.6
4	개별소자 반도체	382	40.6	기타정밀 화학원료	302	6.6
5	컴퓨터부품	315	14.9	합성고무	269	5.6

- ① 2015년 ‘갑’국의 수출액 상위 10개 국가 중 2015년 ‘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4개국이다.
 ② 2014년 ‘갑’국의 대(對) ‘을’국 집적회로반도체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크다.
 ③ 2015년 ‘갑’국의 무역수지는 적자이다.
 ④ 2015년 ‘갑’국의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에서 ‘을’국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갑’국의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에서 ‘을’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작다.
 ⑤ 2015년 ‘갑’국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크다.

※ 다음 <표>는 2016 ~ 2018년 A국 10대 수출품목의 수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표 1> A국 10대 수출품목의 수출액 비중과 품목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금액기준)

(단위: %)

품목	구분 연도	A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품목별 세계수출시장에서 A국의 점유율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백색가전		13.0	12.0	11.0	2.0	2.5	3.0
TV		14.0	14.0	13.0	10.0	20.0	25.0
반도체		10.0	10.0	15.0	30.0	33.0	34.0
휴대폰		16.0	15.0	13.0	17.0	16.0	13.0
2,000cc 이하 승용차		8.0	7.0	8.0	2.0	2.0	2.3
2,000cc 초과 승용차		6.0	6.0	5.0	0.8	0.7	0.8
자동차용 배터리		3.0	4.0	6.0	5.0	6.0	7.0
선박		5.0	4.0	3.0	1.0	1.0	1.0
항공기		1.0	2.0	3.0	0.1	0.1	0.1
전자부품		7.0	8.0	9.0	2.0	1.8	1.7
계		83.0	82.0	86.0	—	—	—

※ A국의 전체 수출액은 매년 변동 없음.

<표 2> A국 백색가전의 세부 품목별 수출액 비중 (단위: %)

세부 품목	연도	2016	2017	2018
일반세탁기		13.0	10.0	8.0
드럼세탁기		18.0	18.0	18.0
일반냉장고		17.0	12.0	11.0
양문형냉장고		22.0	26.0	28.0
에어컨		23.0	25.0	26.0
공기청정기		7.0	9.0	9.0
계		100.0	100.0	100.0

문 19.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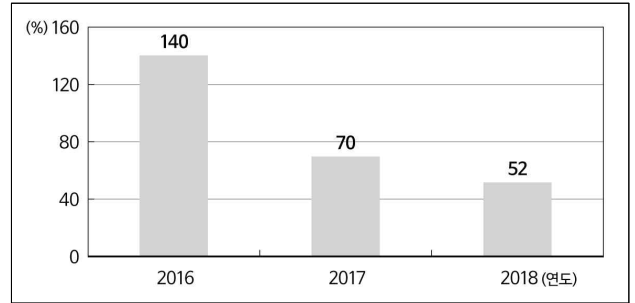
<보 기>

- ㄱ. 2016년과 2018년 선박의 세계수출시장 규모는 같다.
- ㄴ. 2017년과 2018년 A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드럼세탁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매년 감소한다.
- ㄷ. 2017년과 2018년 A국의 10대 수출품목 모두 품목별 세계 수출시장에서 A국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매년 증가한다.
- ㄹ. 2018년 항공기 세계수출시장 규모는 A국 전체 수출액의 15배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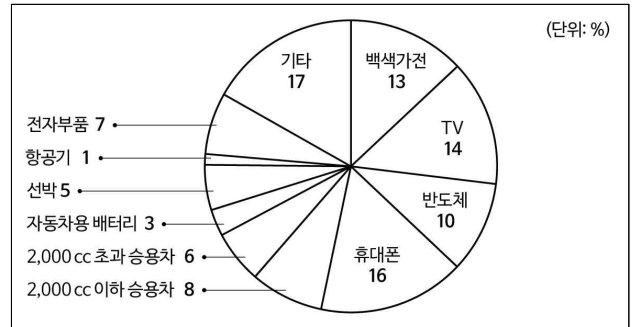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문 20. 위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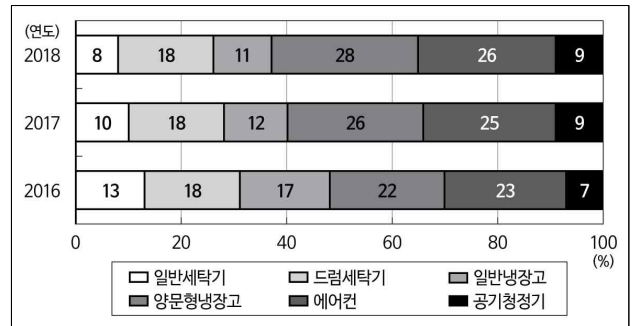
- ① TV의 세계수출시장 규모 대비 A국 전체 수출액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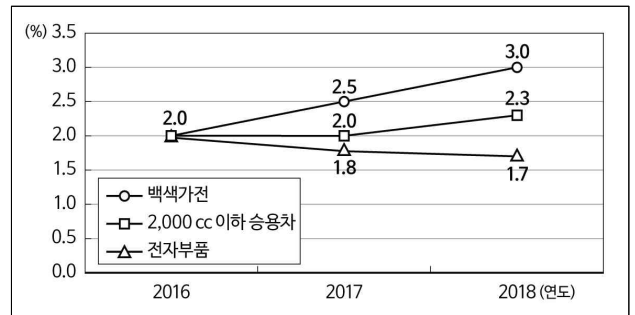
- ② 2016년 A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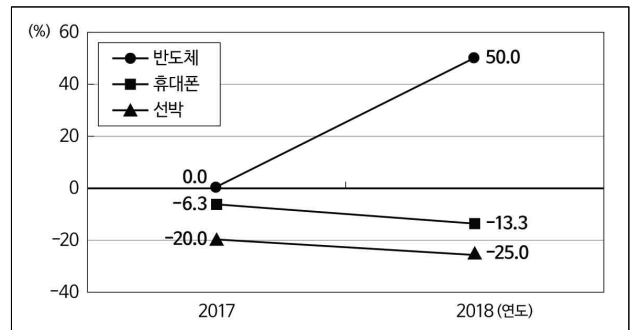
- ③ A국 백색가전 세부 품목별 수출액 비중



- ④ 2016 ~ 2018년 A국 품목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 ⑤ 2017 ~ 2018년 A국 품목별 수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



문 21. 다음 <표>는 2016년 경기도 10개 시의 문화유산 보유건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경기도 10개 시의 유형별 문화유산 보유건수 현황
(단위: 건)

시	유형	국가 지정 문화재	지방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합
용인시		64	36	16	4	120
여주시		24	32	11	3	70
고양시		16	35	11	7	69
안성시		13	42	13	0	68
남양주시		18	34	11	4	67
파주시		14	28	9	12	63
성남시		36	17	3	3	59
화성시		14	26	9	0	49
수원시		14	24	8	2	48
양주시		11	19	9	0	39
전체		224	293	100	35	()

※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 지방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로만 구성됨.

- ① ‘등록 문화재’를 보유한 시는 6개이다.
- ② 유형별 전체 보유건수가 가장 많은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이다.
- ③ 파주시 문화유산 보유건수 합은 전체 문화유산 보유건수 합의 10% 이하이다.
- ④ ‘문화재 자료’ 보유건수가 가장 많은 시는 안성시이다.
- ⑤ ‘국가 지정 문화재’의 시별 보유건수 순위는 ‘문화재 자료’와 동일하다.

문 22. 다음 <표>는 2018년 ‘갑’국 도시 A ~ F의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온열질환자 수, 무더위 쉼터 수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도시별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온열질환자 수, 무더위 쉼터 수 및 인구수

도시	구분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일)	온열 질환자 수 (명)	무더위 쉼터 수 (개)	인구수 (만 명)
A		90	55	92	100
B		30	18	90	53
C		50	34	120	89
D		49	25	100	70
E		75	52	110	80
F		24	10	85	25
전체		()	194	597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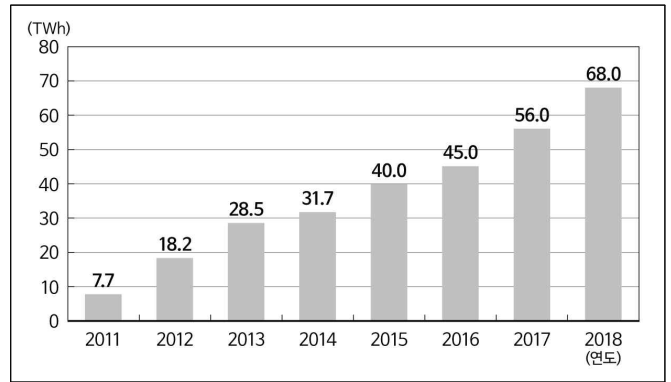
—<보 기>—

- ㄱ. 무더위 쉼터가 100개 이상인 도시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C이다.
- ㄴ. 인구수가 많은 도시일수록 온열질환자 수가 많다.
- ㄷ. 온열질환자 수가 가장 적은 도시와 인구수 대비 무더위 쉼터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동일하다.
- ㄹ. 폭염주의보 발령일수가 전체 도시의 폭염주의보 발령 일수 평균보다 많은 도시는 2개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23. 다음 <그림>과 <표>는 ‘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2011 ~ 2018년 재생에너지 생산량



<표> 2016 ~ 2018년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단위: %)

에너지원	연도	2016	2017	2018
폐기물		61.1	60.4	55.0
바이오		16.6	17.3	17.5
수력		10.3	11.3	15.1
태양광		10.9	9.8	8.8
풍력		1.1	1.2	3.6
계		100.0	100.0	100.0

—<보 기>—

- ㄱ. 2012 ~ 2018년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 ㄴ. 2016 ~ 2018년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의 순위는 매년 동일하다.
- ㄷ. 2016 ~ 2018년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였다.
- ㄹ.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8년이 2016년의 3배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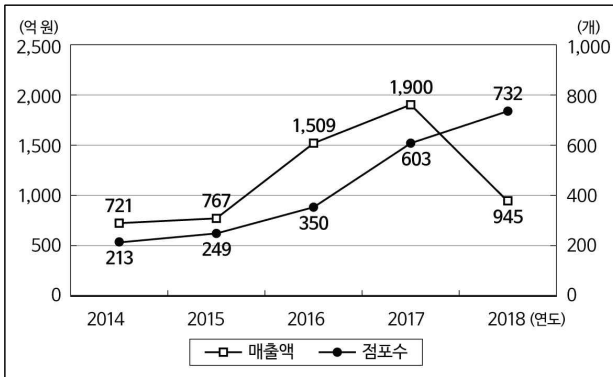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 24. 다음 <표>는 2013 ~ 2018년 커피전문점 A ~ F 브랜드의 매출액과 점포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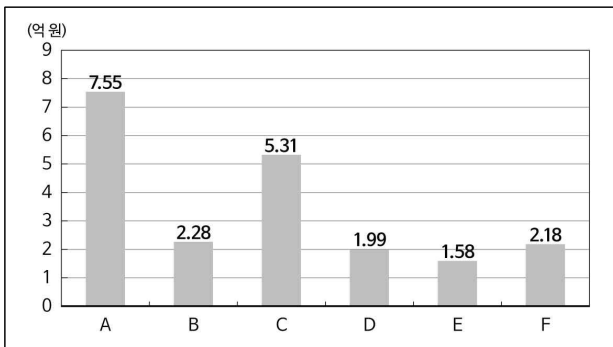
<표> 2013 ~ 2018년 커피전문점 브랜드별 매출액과 점포수
(단위: 억 원, 개)

구분	브랜드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A	1,094	1,344	1,710	2,040	2,400	2,982
	B	—	—	24	223	1,010	1,675
	C	492	679	918	1,112	1,267	1,338
	D	—	129	197	335	540	625
	E	—	155	225	873	1,082	577
	F	—	—	—	—	184	231
	전체	1,586	2,307	3,074	4,583	6,483	7,428
점포수	A	188	233	282	316	322	395
	B	—	—	17	105	450	735
	C	81	110	150	190	208	252
	D	—	71	111	154	208	314
	E	—	130	183	218	248	366
	F	—	—	—	—	71	106
	전체	269	544	743	983	1,507	2,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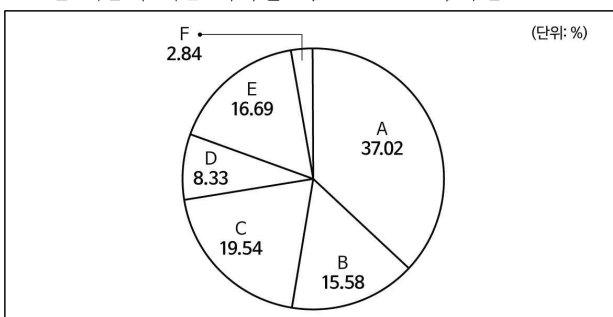
① 전체 커피전문점의 전년대비 매출액과 점포수 증가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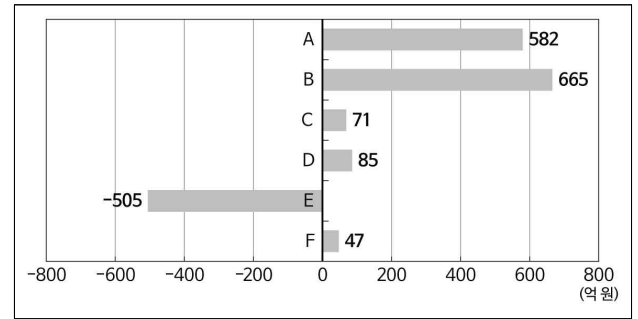
② 2018년 커피전문점 브랜드별 점포당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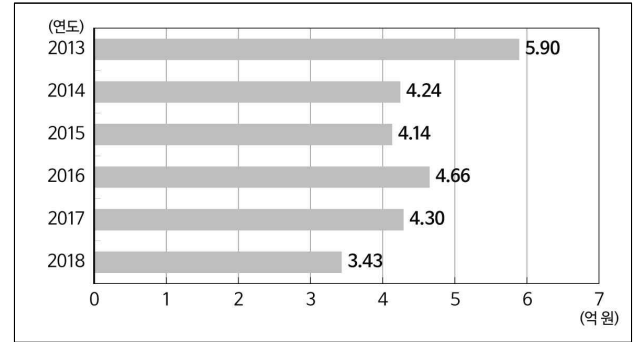
③ 2017년 매출액 기준 커피전문점 브랜드별 점유율



④ 2017년 대비 2018년 커피전문점 브랜드별 매출액의 증가량



⑤ 전체 커피전문점의 연도별 점포당 매출액



문 25. 다음 <표>는 A, B 기업의 경력사원채용 지원자 특성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경력사원채용 지원자 특성

(단위: 명)

기업		A 기업	B 기업
지원자 특성	성별		
	남성	53	57
최종 학력	여성	21	24
	학사	16	18
	석사	19	21
연령대	박사	39	42
	30대	26	27
	40대	25	26
관련 업무 경력	50대 이상	23	28
	5년 미만	12	18
	5년 이상 ~ 10년 미만	9	12
	10년 이상 ~ 15년 미만	18	17
	15년 이상 ~ 20년 미만	16	9
	20년 이상	19	25

※ A 기업과 B 기업에 모두 지원한 인원은 없음.

<보 기>

- ㄱ. A 기업 지원자 중, 남성 지원자의 비율은 관련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지원자의 비율보다 높다.
 ㄴ. 최종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인 B 기업 지원자 중 관련 업무 경력이 20년 이상인 지원자는 7명 이상이다.
 ㄷ. 기업별 여성 지원자의 비율은 A 기업이 B 기업보다 높다.
 ㄹ. A, B 기업 전체 지원자 중 40대 지원자의 비율은 35% 미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6. 다음 <표>는 가정용 정화조에서 수집한 샘플의 수중 질소 성분 농도를 측정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수집한 샘플의 수중 질소 성분 농도
(단위: mg/L)

구분 \ 항목	총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유기성 질소	TKN
샘플 A	46.24	14.25	2.88	29.11	43.36
B	37.38	6.46	()	25.01	()
C	40.63	15.29	5.01	20.33	35.62
D	54.38	()	()	36.91	49.39
E	41.42	13.92	4.04	23.46	37.38
F	()	()	5.82	()	34.51
G	30.73	5.27	3.29	22.17	27.44
H	25.29	12.84	()	7.88	20.72
I	()	5.27	1.12	35.19	40.46
J	38.82	7.01	5.76	26.05	33.06
평균	39.68	()	4.34	()	35.34

- ※ 1) 총질소 농도 =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 질산성 질소 농도 + 유기성 질소 농도
2) TKN 농도 =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 유기성 질소 농도

<보 기>

ㄱ. 샘플 A의 총질소 농도는 샘플 I의 총질소 농도보다 높다.
ㄴ. 샘플 B의 TKN 농도는 30mg/L 이상이다.
ㄷ. 샘플 B의 질산성 질소 농도는 샘플 D의 질산성 질소 농도보다 낮다.
ㄹ. 샘플 F는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유기성 질소 농도보다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27. 다음 <표>는 ‘갑’국 A ~ J 지역의 대형종합소매업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지역별 대형종합소매업 현황

구분 \ 지역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건물 연면적 (㎡)
A	47	6,731	4,878,427	1,683,092
B	33	4,173	2,808,881	1,070,431
C	35	4,430	3,141,552	1,772,698
D	18	2,247	1,380,511	677,288
E	22	3,152	1,804,262	765,096
F	19	2,414	1,473,698	633,497
G	147	18,287	11,625,278	5,032,741
H	17	1,519	861,094	364,296
I	19	2,086	1,305,468	535,880
J	16	1,565	879,172	326,373
전체	373	46,604	30,158,343	12,861,392

<보 기>

ㄱ.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지역은 모두 2개이다.
ㄴ. 사업체당 매출액은 G 지역이 가장 크다.
ㄷ. I 지역의 종사자당 매출액은 E 지역의 종사자당 매출액 보다 크다.
ㄹ. 건물 연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이 매출액도 가장 작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문 28. 다음 <표>는 1996 ~ 2015년 생명공학기술의 기술분야별 특허건수와 점유율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 ~ D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996 ~ 2015년 생명공학기술의 기술분야별 특허건수와 점유율
(단위: 건, %)

기술분야 \ 구분	전세계 특허건수	미국 점유율	한국 특허건수	한국 점유율
생물공정기술	75,823	36.8	4,701	6.2
A	27,252	47.6	1,880	()
생물자원탐색기술	39,215	26.1	6,274	16.0
B	170,855	45.6	7,518	()
생물농약개발기술	8,122	42.8	560	6.9
C	20,849	8.1	4,295	()
단백질체기술	68,342	35.1	3,622	5.3
D	26,495	16.8	7,127	()

※ 해당국의 점유율(%) = $\frac{\text{해당국의 특허건수}}{\text{전세계 특허건수}} \times 100$

<조 건>

- ‘발효식품개발기술’과 ‘환경생물공학기술’은 미국보다 한국의 점유율이 높다.
- ‘동식물세포배양기술’에 대한 미국 점유율은 ‘생물농약 개발기술’에 대한 미국 점유율보다 높다.
- ‘유전체기술’에 대한 한국 점유율과 미국 점유율의 차이는 41%p 이상이다.
- ‘환경생물공학기술’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은 25% 이상이다.

A

B

C

D

- | | | | |
|-------------|-----------|-----------|----------|
| ① 동식물세포배양기술 | 유전체기술 | 발효식품개발기술 | 환경생물공학기술 |
| ② 동식물세포배양기술 | 유전체기술 | 환경생물공학기술 | 발효식품개발기술 |
| ③ 발효식품개발기술 | 유전체기술 | 동식물세포배양기술 | 환경생물공학기술 |
| ④ 유전체기술 | 동식물세포배양기술 | 발효식품개발기술 | 환경생물공학기술 |
| ⑤ 유전체기술 | 동식물세포배양기술 | 환경생물공학기술 | 발효식품개발기술 |

문 29. 다음 <표>와 <그림>은 2017년 지역별 정보탐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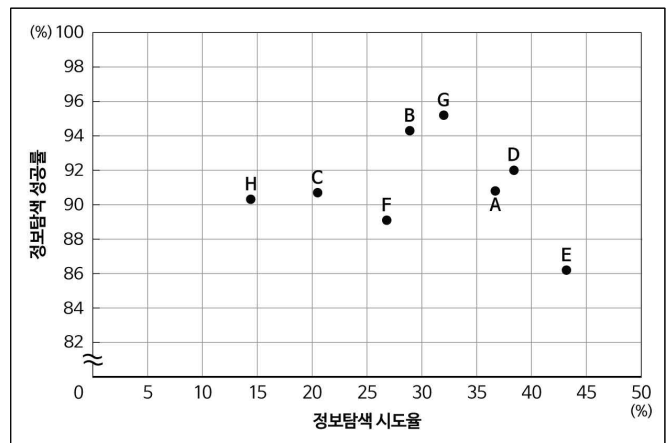
<표> 지역별 인구수 및 정보탐색 시도율과 정보탐색 성공률
(단위: 명, %)

지역 \ 구분 성별	인구수		정보탐색 시도율		정보탐색 성공률	
	남	여	남	여	남	여
A	5,800	4,200	35.0	39.0	90.1	91.6
B	1,000	800	28.0	30.0	92.9	95.8
C	2,500	3,000	15.0	25.0	88.0	92.0
D	4,000	3,500	37.0	40.0	91.2	92.9
E	4,800	3,200	42.0	45.0	87.3	84.7
F	6,000	6,500	20.0	33.0	81.7	93.2
G	1,200	900	35.0	28.0	95.2	95.2
H	1,400	1,600	16.0	13.0	89.3	91.3

※ 1) 정보탐색 시도율(%) = $\frac{\text{정보탐색 시도자수}}{\text{인구수}} \times 100$

2) 정보탐색 성공률(%) = $\frac{\text{정보탐색 성공자수}}{\text{정보탐색 시도자수}} \times 100$

<그림> 지역별 정보탐색 시도율과 정보탐색 성공률 분포



- ① 인구수 대비 정보탐색 성공자수의 비율은 B 지역이 D 지역보다 높다.
- ② 인구수 대비 정보탐색 성공자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H 지역이다.
- ③ 정보탐색 시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보탐색 성공률도 높다.
- ④ 인구수가 가장 작은 지역과 남성 정보탐색 성공자수가 가장 작은 지역은 동일하다.
- ⑤ D 지역의 여성 정보탐색 성공자수는 C 지역의 여성 정보탐색 성공자수의 2배 이상이다.

문 30. 다음 <표>는 ‘갑’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A ~ F)의 분야별 잠재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각 코치가 맡은 모든 분야를 체크(✓)로 표시할 때, <표>와 <조건>에 부합하는 코치의 역할 배분으로 가능한 것은?

<표> 코치의 분야별 잠재능력				
코치\분야	체력	전술	수비	공격
A	18	20	18	15
B	18	16	15	20
C	16	18	20	15
D	20	16	15	18
E	20	18	16	15
F	16	14	20	20

- <조 건>————
- 각 코치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분야를 맡는다.
 - 코치의 분야별 투입능력 = $\frac{\text{코치의 분야별 잠재능력}}{\text{코치가 맡은 분야의 수}}$
 - 각 분야별로 그 분야를 맡은 모든 코치의 분야별 투입능력 합은 24 이상이어야 한다.

①

코치\분야	체력	전술	수비	공격
A	✓	✓		✓
B		✓	✓	
C	✓			
D		✓	✓	
E	✓			✓
F			✓	✓

②

코치\분야	체력	전술	수비	공격
A		✓		
B		✓	✓	✓
C	✓		✓	
D	✓	✓		✓
E	✓			✓
F			✓	

③

코치\분야	체력	전술	수비	공격
A		✓	✓	
B				✓
C	✓	✓		✓
D	✓		✓	
E		✓		✓
F	✓		✓	

④

코치\분야	체력	전술	수비	공격
A		✓	✓	
B		✓		✓
C			✓	
D	✓			✓
E	✓		✓	✓
F	✓	✓		

⑤

코치\분야	체력	전술	수비	공격
A	✓			✓
B				✓
C	✓	✓	✓	
D		✓	✓	✓
E	✓			
F		✓	✓	

문 31. 다음 <표>는 2014 ~ 2018년 ‘갑’국의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 (단위: 명)

연도\구분	처리	처리 결과		기소 유형	
		기소	불기소	정식재판 기소	약식재판 기소
2014	33,654	14,205	()	()	12,239
2015	26,397	10,962	15,435	1,972	()
2016	28,593	12,287	()	()	10,050
2017	31,096	12,057	19,039	2,619	()
2018	38,152	()	()	3,513	10,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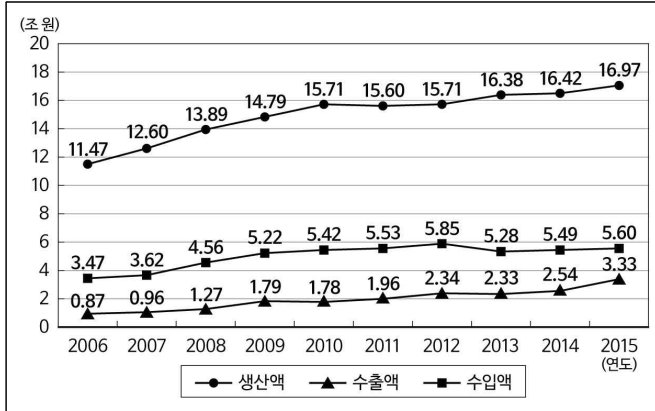
- ※ 1) 모든 범죄 피의자는 당해년도에 처리됨.
2)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기소와 불기소로만 구분되며, 기소 유형은 정식재판기소와 약식재판기소로만 구분됨.

3) 기소율(%) = $\frac{\text{기소 인원}}{\text{처리 인원}} \times 100$

- ① 2015년 이후 처리 인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연도에는 기소 인원도 전년대비 증가한다.
- ② 2018년 기소 인원과 기소율은 2014년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 ③ 2017년 불기소 인원은 2018년보다 많다.
- ④ 2014년 불기소 인원은 정식재판기소 인원의 10배 이상이다.
- ⑤ 처리 인원 중 정식재판기소 인원과 약식재판기소 인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0 % 미만이다.

문 32. 다음 <그림>과 <표>는 연도별 의약품 국내시장 현황과 세계 지역별 의약품 시장규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2006 ~ 2015년 의약품 국내시장 현황



※ 국내시장규모 = 생산액 - 수출액 + 수입액

<표> 2013 ~ 2014년 세계 지역별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지역	연도 구분	2013		2014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북미		362.8	38.3	405.6	39.5
유럽		219.8	()	228.8	22.3
아시아(일본 제외), 호주, 아프리카		182.6	19.3	199.2	19.4
일본		80.5	8.5	81.6	7.9
라틴 아메리카		64.5	()	72.1	7.0
기타		37.4	3.9	39.9	3.9
전체		947.6	100.0	()	100.0

<보 기>

- ㄱ. 2013년 의약품 국내시장규모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ㄴ. 2008 ~ 2015년 동안 의약품 국내시장규모는 전년대비 매년 증가하였다.
- ㄷ. 2014년 의약품 세계 전체 시장규모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ㄹ. 2014년 의약품 세계 전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33. 다음 <표>는 2014 ~ 2018년 ‘갑’국의 예산 및 세수 실적과 2018년 세수항목별 세수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4 ~ 2018년 ‘갑’국의 예산 및 세수 실적 (단위: 십억 원)

연도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2014		175,088	198,902	180,153	7,270
2015		192,620	211,095	192,092	8,200
2016		199,045	208,745	190,245	8
2017		204,926	221,054	195,754	2,970
2018		205,964	237,000	208,113	2,321

<표 2> 2018년 ‘갑’국의 세수항목별 세수 실적 (단위: 십억 원)

세수항목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총 세수		205,964	237,000	208,113	2,321
내국세		183,093	213,585	185,240	2,301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3,920	14,110	14,054	10
교육세		5,184	4,922	4,819	3
농어촌 특별세		2,486	2,674	2,600	1
종합 부동산세		1,281	1,709	1,40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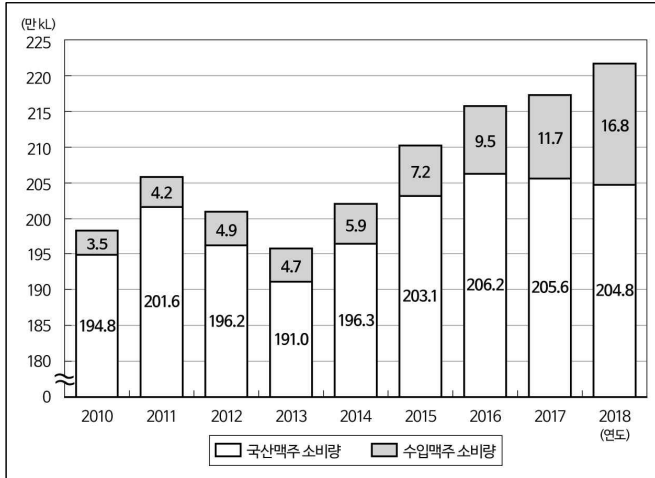
※ 1)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2) \text{수납비율}(\%) = \frac{\text{수납액}}{\text{예산액}} \times 100$$

- ① 미수납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8년이다.
- ② 수납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14년이다.
- ③ 2018년 내국세 미수납액은 총 세수 미수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 ④ 2018년 세수항목 중 수납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종합부동산세이다.
- ⑤ 2018년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미수납액은 교육세 미수납액보다 크다.

문 34. 다음 <그림>과 <표>는 ‘갑’국 맥주 소비량 및 매출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림> 2010 ~ 2018년 국산맥주 소비량 및 수입맥주 소비량



※ 맥주 소비량(만 KL) = 국산맥주 소비량 + 수입맥주 소비량

<표> ‘갑’국 전체 맥주 매출액 대비 브랜드별 맥주 매출액 비중 순위 (단위: %)

순위	2017년			2018년		
	브랜드명	비중	비고	브랜드명	비중	비고
1	파아스	37.4	국산	파아스	32.3	국산
2	하이프	15.6	국산	하이프	15.4	국산
3	드로이C	7.1	국산	클라우드스	8.0	국산
4	막스	6.6	국산	막스	4.7	국산
5	프라이	6.5	국산	프라이	4.3	국산
6	아사리	3.3	수입	드로이C	4.1	국산
7	하이네켄	3.2	수입	R맥주	4.0	수입
8	R맥주	3.0	수입	아사리	3.8	수입
9	호가튼	2.0	수입	하이네켄	3.4	수입
10	갓포로	1.3	수입	파울러나	1.9	수입

—<보고서>—

㉠ ‘갑’국 맥주 소비량은 201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되어, 2013년 총 195만 7천 KL였던 맥주 소비량이 2018년에는 221만 6천 KL에 이르렀다. 이는 수입맥주 소비량의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로 파악된다. ㉡ 2010년 ‘갑’국 맥주 소비량 중 2% 미만이었던 수입맥주 소비량 비중이 2018년에는 7% 이상이 되었다. ㉢ 2014 ~ 2018년 ‘갑’국 수입맥주 소비량의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매년 커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브랜드별 ‘갑’국 맥주시장 매출액 비중 순위를 살펴보면 국산맥주 브랜드가 1 ~ 5위를 차지하여 매출액 비중 순위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맥주 매출액 상위 10개 브랜드 중 수입맥주 브랜드가 ‘갑’국 전체 맥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보다 2018년에 커졌다. 그리고 ㉤ ‘갑’국 전체 맥주 매출액에서 상위 5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작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35. 다음 <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1 ~ 2015년 전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천 가구, 십억 원)

구분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연도							
2011	930	747	1,210	864	752	712	762
2012	1,020	719	1,384	893	692	882	765
2013	1,060	967	1,302	992	769	803	723
2014	1,658	1,419	1,403	975	750	715	572
2015	1,635	1,155	1,114	775	608	599	451

※ 1)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만 구성됨.

2) 단일 연도에 같은 종류의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가구는 없음.

<표 2> 2015년 지역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천 가구, 십억 원)

구분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장려금만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근로	자녀
지역							
서울	247	174	119	95	83	86	57
인천	105	72	79	52	40	39	30
경기	344	261	282	188	144	144	106
강원	71	44	42	29	23	23	17
대전	58	35	38	26	21	20	16
충북	59	36	41	29	20	20	16
충남	70	43	46	33	24	23	19
세종	4	3	4	2	2	2	1
광주	62	39	43	31	24	23	18
전북	91	59	54	40	31	30	25
전남	93	58	51	38	29	28	24
대구	93	64	59	39	33	32	23
경북	113	75	68	47	36	34	27
부산	126	88	70	45	37	35	26
울산	26	15	20	13	10	10	7
경남	109	74	79	54	40	39	30
제주	24	15	19	14	11	11	9

- ①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수는 2011 ~ 2014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2년이다.
③ 2015년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가구 중 경기 지역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다.
④ 2015년 각 지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보다 크다.
⑤ 201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부산이 전국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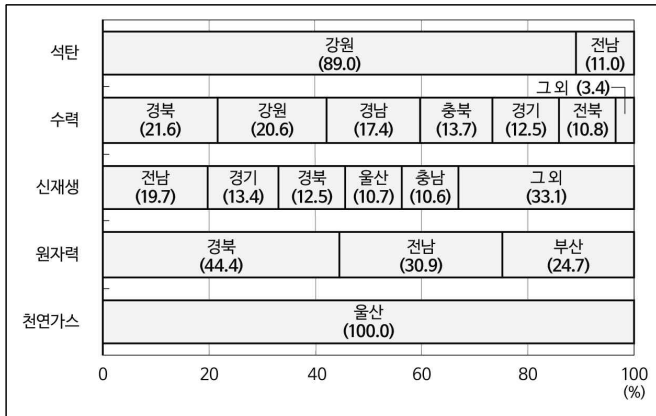
문 36. 다음 <표>와 <그림>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유형별 1차에너지 생산과 최종에너지 소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08 ~ 2012년 1차에너지의 유형별 생산량
(단위: 천 TOE)

연도 \ 유형	석탄	수력	신재생	원자력	천연가스	합
2008	1,289	1,196	5,198	32,456	236	40,375
2009	1,171	1,213	5,480	31,771	498	40,133
2010	969	1,391	6,064	31,948	539	40,911
2011	969	1,684	6,618	33,265	451	42,987
2012	942	1,615	8,036	31,719	436	42,748

※ 국내에서 생산하는 1차에너지 유형은 제시된 5가지로만 구성됨.

<그림> 2012년 1차에너지의 지역별 생산량 비중(TOE 기준)



<표 2> 유형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2008 ~ 2012년)와 지역별 최종에너지 소비(2012년)

(단위: 천 TOE)

연도 \ 유형	석탄	석유제품	천연 및 도시가스	전력	열	신재생	합
2008	26,219	97,217	19,765	33,116	1,512	4,747	182,576
2009	23,895	98,370	19,459	33,925	1,551	4,867	182,067
2010	29,164	100,381	21,640	37,338	1,718	5,346	195,587
2011	33,544	101,976	23,672	39,136	1,702	5,833	205,863
2012	31,964	101,710	25,445	40,127	1,751	7,124	208,121
지역							
서울	118	5,863	4,793	4,062	514	218	15,568
부산	62	3,141	1,385	1,777	-	104	6,469
대구	301	1,583	970	1,286	80	214	4,434
인천	54	6,798	1,610	1,948	-	288	10,698
광주	34	993	630	699	-	47	2,403
대전	47	945	682	788	-	51	2,513
울산	451	19,357	2,860	2,525	-	336	25,529
경기	335	10,139	5,143	8,625	1,058	847	26,147
강원	1,843	1,875	312	1,368	-	644	6,042
충북	1,275	2,044	752	1,837	59	471	6,438
충남	5,812	17,184	1,454	3,826	5	143	28,424
전북	27	2,177	846	1,846	-	337	5,233
전남	11,675	21,539	975	2,450	-	2,251	38,890
경북	9,646	3,476	1,505	3,853	-	879	19,359
경남	284	3,873	1,515	2,839	35	266	8,812
제주	-	721	13	332	-	28	1,094
기타	-	2	-	66	-	-	68

※ 국내에서 소비하는 최종에너지 유형은 제시된 6가지로만 구성됨.

- ① 2008년 대비 2012년의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큰 1차에너지 유형은 천연가스이다.
- ② 2012년 1차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에서는 같은 해 최종에너지 중 석유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였다.
- ③ 2012년 석탄 1차에너지 생산량은 2012년 경기 지역의 신재생 1차에너지 생산량보다 적다.
- ④ 2012년에 1차에너지 생산량이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합보다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 ⑤ 2008년 대비 2012년의 소비량 증가율이 가장 큰 최종에너지 유형은 신재생이다.

문 37. 다음 <표>는 ‘갑’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산정기준과 계절별 부하 시간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산정기준

월 기본요금 (원)	전력량 요율 (원/kWh)			
	계절 시간대	여름 (6 ~ 8월)	봄 (3 ~ 5월), 가을 (9 ~ 10월)	겨울 (1 ~ 2월, 11 ~ 12월)
2,390	경부하	57.6	58.7	80.7
	중간부하	145.3	70.5	128.2
	최대부하	232.5	75.4	190.8

※ 1) 월 충전요금(원) = 월 기본요금

+ (경부하 시간대 전력량 요율 × 경부하 시간대 충전 전력량)
+ (중간부하 시간대 전력량 요율 × 중간부하 시간대 충전 전력량)
+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량 요율 × 최대부하 시간대 충전 전력량)

2) 월 충전요금은 해당 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충전 전력량을 사용하여 산정함.

3) 1시간에 충전되는 전기자동차의 전력량은 5 kWh임.

<표 2> 계절별 부하 시간대

계절 시간대	여름 (6 ~ 8월)	봄 (3 ~ 5월), 가을 (9 ~ 10월)	겨울 (1 ~ 2월, 11 ~ 12월)
경부하	00:00 ~ 09:00 23:00 ~ 24:00	00:00 ~ 09:00 23:00 ~ 24:00	00:00 ~ 09:00 23:00 ~ 24:00
중간부하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09:00 ~ 10:00 12:00 ~ 17:00 20:00 ~ 22:00
최대부하	10:00 ~ 12:00 13:00 ~ 17:00	10:00 ~ 12:00 13:00 ~ 17:00	10:00 ~ 12:00 17:00 ~ 20:00 22:00 ~ 23:00

- ① 모든 시간대에서 봄, 가을의 전력량 요율이 가장 낮다.
- ② 월 100 kWh를 충전했을 때 월 충전요금의 최댓값과 최솟값 차이는 16,000원 이하이다.
- ③ 중간부하 시간대의 총 시간은 6월 1일과 12월 1일이 동일하다.
- ④ 22시 30분의 전력량 요율이 가장 높은 계절은 여름이다.
- ⑤ 12월 중간부하 시간대에만 100 kWh를 충전한 월 충전요금은 6월 경부하 시간대에만 100 kWh를 충전한 월 충전요금의 2배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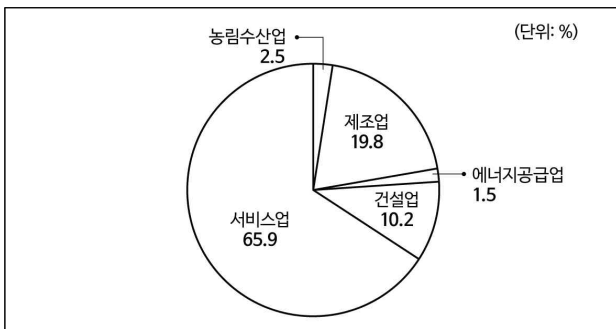
문 38. 다음 <표>는 2010 ~ 2016년 ‘갑’국의 신설법인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0 ~ 2016년 ‘갑’국의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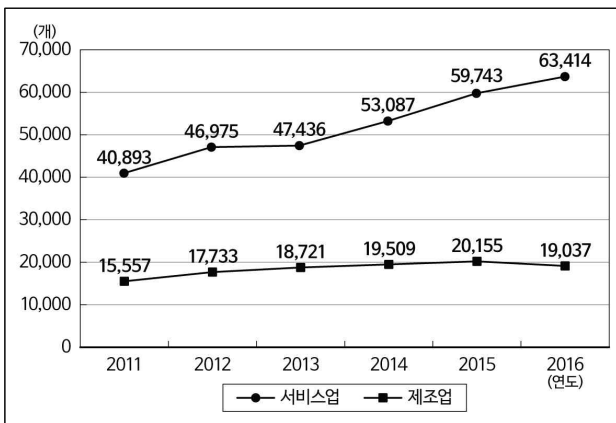
(단위: 개)

업종 연도	농림 수산업	제조업	에너지 공급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체
2010	1,077	14,818	234	6,790	37,393	60,312
2011	1,768	15,557	299	6,593	40,893	65,110
2012	2,067	17,733	391	6,996	46,975	74,162
2013	1,637	18,721	711	7,069	47,436	75,574
2014	2,593	19,509	1,363	8,145	53,087	84,697
2015	3,161	20,155	967	9,742	59,743	93,768
2016	2,391	19,037	1,488	9,825	63,414	96,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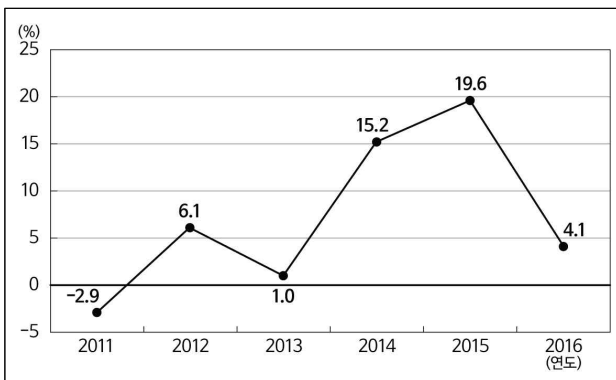
① 2016년 신설법인의 업종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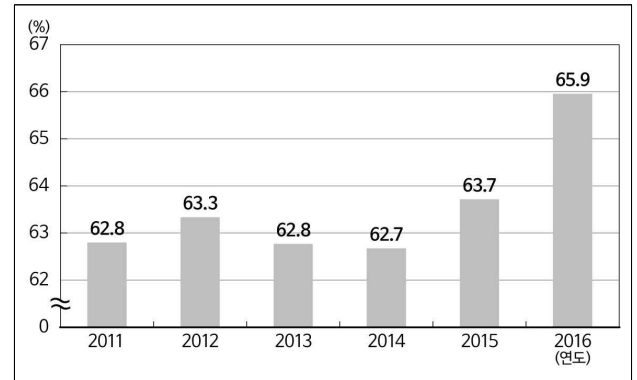
② 2011 ~ 2016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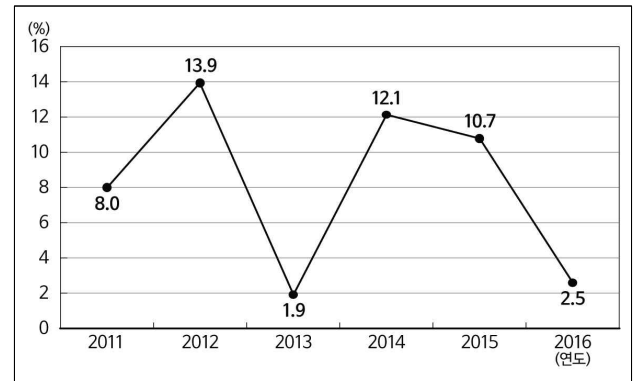
③ 2011 ~ 2016년 건설업 신설법인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④ 2011 ~ 2016년 신설법인 중 서비스업 신설법인 비율



⑤ 2011 ~ 2016년 전체 신설법인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 다음 <표>는 2019년 2월에 ‘갑’국 국민 중 표본을 추출하여 2017년, 2018년 고용형태와 소득분위의 변화를 조사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 ~ 문 40.]

<표 1> 2017년에서 2018년 표본의 고용형태 변화비율
(단위: %)

구분		2018년		합계
		사업가	피고용자	
2017년	사업가	80	20	100
	피고용자	30	70	100

※ 고용형태는 사업가와 피고용자로만 나누어지며 실업자는 없음.

<표 2> 고용형태 변화 유형별 표본의 소득분위 변화
(단위: %)

I. 사업가(2017년) → 사업가(2018년)						
2018년 2017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1분위	40.0	35.0	10.0	10.0	5.0	100.0
2분위	10.0	55.0	25.0	5.0	5.0	100.0
3분위	5.0	15.0	45.0	25.0	10.0	100.0
4분위	5.0	5.0	20.0	45.0	25.0	100.0
5분위	0.0	0.0	5.0	15.0	80.0	100.0
II. 사업가(2017년) → 피고용자(2018년)						
2018년 2017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1분위	70.0	30.0	0.0	0.0	0.0	100.0
2분위	25.0	55.0	15.0	5.0	0.0	100.0
3분위	5.0	25.0	50.0	15.0	5.0	100.0
4분위	5.0	10.0	20.0	50.0	15.0	100.0
5분위	0.0	5.0	5.0	15.0	75.0	100.0
III. 피고용자(2017년) → 피고용자(2018년)						
2018년 2017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1분위	85.0	10.0	5.0	0.0	0.0	100.0
2분위	15.0	65.0	15.0	5.0	0.0	100.0
3분위	5.0	20.0	60.0	15.0	0.0	100.0
4분위	0.0	5.0	15.0	65.0	15.0	100.0
5분위	0.0	5.0	5.0	15.0	75.0	100.0
IV. 피고용자(2017년) → 사업가(2018년)						
2018년 2017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1분위	50.0	40.0	5.0	5.0	0.0	100.0
2분위	10.0	60.0	20.0	5.0	5.0	100.0
3분위	5.0	20.0	50.0	20.0	5.0	100.0
4분위	0.0	10.0	20.0	50.0	20.0	100.0
5분위	0.0	0.0	5.0	35.0	60.0	100.0

- ※ 1) ‘가(2017년) → 나(2018년)’는 고용형태 변화 유형을 나타내며, 2017년 고용형태 ‘가’에서 2018년 고용형태 ‘나’로 변화된 것을 의미함.
2) 소득분위는 1 ~ 5분위로 구분하며, 숫자가 클수록 분위가 높음.
3) 각 고용형태 변화 유형 내에서 2017년 소득분위별 인원은 동일함.

문 39. ‘갑’국 표본의 2017년 고용형태에서 사업가와 피고용자가 각각 5,000명일 때, 위 <표>를 근거로 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2017년 사업가에서 2018년 피고용자로 고용형태가 변화된 사람 중에서 2018년에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모두 210명이다.

ㄴ. 2018년 고용형태가 사업가인 사람은 6,000명이다.

ㄷ. 2017년 피고용자에서 2018년 사업가로 고용형태가 변화된 사람 중에서 2017년 소득 2분위에서 2018년 소득분위가 높아진 사람은 모두 90명이다.

ㄹ. 동일한 표본에 대해, 2017년에서 2018년 고용형태 변화 비율과 같은 비율로 2018년에서 2019년 고용형태가 변화 된다면 2019년 피고용자의 수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40. 위 <표>를 근거로 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2017년 소득 1분위이면서 2018년 소득분위가 2017년 소득분위보다 높아진 사람의 비율은, ‘사업가(2017년) → 사업가(2018년)’ 유형이 ‘사업가(2017년) → 피고용자(2018년)’ 유형보다 높다.

ㄴ. 2017년 소득 3분위이면서 2018년 소득분위가 2017년 소득분위보다 높아진 사람의 비율은, ‘피고용자(2017년) → 사업가(2018년)’ 유형이 ‘피고용자(2017년) → 피고용자(2018년)’ 유형보다 높다.

ㄷ. 고용형태 변화 유형 네 가지 중에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소득분위가 변동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사업가(2017년) → 피고용자(2018년)’이다.

ㄹ. 고용형태 변화 유형 네 가지 중에서 2018년에 소득 5분위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사업가(2017년) → 사업가(2018년)’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